

다저스 충격의 탈락...류현진도 PS 마감 'FA 시장'으로

연장 접전 끝 3-7 역전패... '에이스' 커쇼, 8회초 3-0 상황서 동점 허용

류현진, 정규시즌 14승5패 평균자책점 2.32로 '전체 투수 1위' 마감

LA 다저스가 충격적인 탈락을 맞았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은 허무하게 가을야구를 마감하며 자유계약선수(FA) 시장으로 향한다.

다저스는 1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다비전시리즈(5선3선승제) 워싱턴 내셔널스와 최종 5차전에서 연장 10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3-7 역전패를 당했다.

초반 맥스 먼시의 투런포, 케케 에르난데스의 솔로포로 3-0의 리드를 잡은 채 선발투수 위커 블러(6%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눈앞에 뒀던 다저스. 그러나 승리는 다저스의 것이 아니었다.

구원 등판한 '윈조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가 8회초 앤서니 렌던, 후안 호토에게 백투백 홈런을 맞고

동점을 허용했다. 연장 10회초에는 가을야구를 위해 영입했던 조 켈리가 하위 캔드릭에게 만루홈런을 얻어맞았다.

1차전, 3차전에서 승리하며 2승1패를 기록했던 다저스는 4.5차전을 내리 패하며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특히 정규시즌에서 106승56패(승률 0.654)로 내셔널리그 최고 승률을 기록하고도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통해 겨우 다비전시리즈에 오른 워싱턴(93승69패·승률 0.574)에 발목을 잡혔다.

류현진도 단 한 경기만에 이번 가을야구를 마감했다. 류현진은 정규시즌에서 14승5패 평균자책점 2.32(182%이닝 47자책) 163탈삼진을 기록하며 팀의 에이스급 활약을 펼치고도 다비전시리즈에는 3차전 선발로 등판했다.

1승1패로 맞선 중요한 상황에서 3차전 선발로 나선 류현진은 5이닝 4피안타(1피홈런) 2볼넷 3탈삼진 2실점 호투로 팀의 10-4 승리를 견인하며 자신의 포스트시즌 3승째를 올렸다. 당초 5차전 불펜 등판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류현진이 파운드에 오를 기회는 없었다. 다저스의 탈락으로 류현진의 가을야구도 그대로 종료.

이제 류현진은 FA 자격이 된다. 지난해 FA가 돼 다저스의 켈리파인오퍼를 수락해 올 시즌 연봉 1790만달러(약 210억원)를 받았다. 켈리파인오퍼는 1년 계약으로, 시즌을 마친 류현진에게는 다시 FA 자격이 주어졌다.

벌써부터 류현진을 향한 관심이 솔솔 피어나고 있다. 선발투수를 필요로 하는 이웃구단 LA 에인절



스가 류현진을 영입해야 한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자주 나온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피츠버그 파이리츠도 류현진 행선지 후보 중 하나

나로 꼽힌다. 다저스에 잔류하는 것 또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관건은 역시 몸값. 올 시즌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1위에 오르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류현진. FA 계약이 류현진 관련 다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에도 잘 될 것” 해피엔딩 양현중, 벌써 2020 바라본다



“내년에도 잘 될 것이다.” KIA 타이거즈 에이스 양현중(31)은 2019시즌 평균자책점(ERA) 1위(2.29)를 확정했다.

4년 만에 통산 두 번째로 ERA 타이틀을 접수했다. 투수들이 가장 따고 싶은 타이틀을 손에 쥐었다.

4월 말까지 ERA 8.01로 규정 이닝 투수 가운데 꼴찌였다. 몸을 회복한 5월부터는 극강의 불을 던졌다.

꾸준히 매월 1점대 ERA를 기록하던 8월에는 0점대 ERA 투수를 했다. 급기야 린드블럼을 추월하는데 성공했다.

투구의 눈을 폈다. 완급 조절 능력이 두드러졌다. 힘을 앞세운 투구가 아니었다.

투구과정에서 힘의 손실이 없는 부드러운 폼으로 바꾸면서 제구와 이닝 소화력이 나아졌다. 9

이닝당 볼넷이 1.61개로 낮아졌다.

동시에 오히려 볼의 힘도 좋아졌다. 여기에 공격적인 승부까지 더해져 투구수도 줄었다.

양현중은 내년 시즌에도 활약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그는 “시즌 초반 힘들 때 팬들과 가족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다. 항상 나를 믿어주어 고맙다. 팀 성적이 좋지 못해 아쉽지만 나도 공부가 많이 됐다. 젊은 투수들도 공부가 많이 됐을 것 같다. 내년 시즌 (나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투수들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0시즌 많은 것들이 목표이다. 우선 통산 150승에 도전한다. 올해까지 136승을 따냈다. 14승을 더하면 이를 수 있다.

6년 연속 180이닝에 도전하면서 통산 2000이닝도 시야에 두었다. 186%이닝을 소화하면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RA 2연패도 있다. 올해의 기세라면 모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여자농구 선수들이 뽑은 우승 후보는 'KB'...압도적 지지

선수들이 뽑은 새 시즌 여자프로농구 우승 후보는 디펜딩챔피언 청주 KB였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하나원큐 2019-2020 여자프로농구 개막 미디어데이를 열었다.

이날 미디어데이에선 WKBL이 6개 구단 88명의 국내 선수를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사전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2019-2020시즌 우승팀을 예측해달라는 질문에는 지난해 우승팀 KB가 65표(73.9%)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1위를 차지했다.

KB는 지난해 정규리그에서 28승 7패를 기록, 리그 1위에 오른 뒤 챔피언결정전에서도 아산 우리은행을 꺾고 창단 첫 통합우승을 달성했다.

우리은행은 2012-2013시즌부터 6년 연속 통합우승을 차지한 강호였지만 KB에 밀리며 연속 우승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다. KB 다음으로는 우리은행이 11



표를 받아 2위(12.5%)에 올랐고 삼성생명 10표로 3위(11.4%)에 자리했다.

안덕수 KB 감독은 “디펜딩챔피언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초심,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져가겠다”며 “우승을 목표로 비시즌 열심히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3팀을 묻는 질문에는 용인 삼성생명 75표를 받아 득표수 85.2%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KB가 74표(84%)로 2위, 우리은행이 72표(81.8%)로 3위에 올랐다.

부산 BNK 썬과 인천 신한은행, 부천 KB하나은행이 각각 4, 5, 6위에 자리했다.

명품하는 행복의군민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